1 교시

감독관확인

2026년도 2차
임상의학종합평가 문제지

응시번호		성명	

본 시험은 각 문항에서 가장 적합한 답 하나만 선택하는 최선답형 시험입니다.

문항 내용의 무단 복제,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본 문제지에 수록된 문항의 저작권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있으며, 문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의학교육평가사업단
KAMC Medical Education Assessment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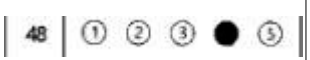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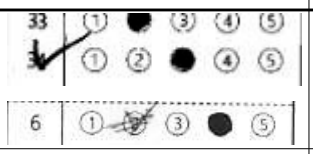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대학코드", "학번", "교시"를 잘못 마킹할 경우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답안지 제출 전 확인바랍니다.

2) OMR카드에 **정답마킹 이외의 흔적은 수정테이프로 지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답안에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한 경우는 전산 채점과정에서 **중복마킹으로 인식되어 오답**처리 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손으로 눌러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OMR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질 경우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아래 안 좋은 마킹 예시의 경우 오답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마킹 예시		검은사인펜으로 원 안을 가급적 많이 채워주세요.
안 좋은 마킹 예시		다른 펜으로 체크한 사항은 중복 마킹으로 인식되니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바랍니다.
		원 안에 빈 공간이 많은 경우 인식률이 낮으며 오답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필로 마킹**하는 경우 인식률이 낮으며 오답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원 밖까지 과도하게 마킹하는 경우 옆 번호까지 마킹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각 문제에 대해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 원장 A는 의료인 수급 문제를 이유로 야간에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았다. 당직의료인이 없는 사이 입원 환자에게 급성 상황이 발생하였고 처치가 지연되었다. 「의료법」에 따라 A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재는?

① 벌금
② 과태료
③ 자격정지
④ 면허취소
⑤ 의료업 정지

2. 군 지역에서 A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갑'은 얼마 전 군수로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을'이 A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았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갑'은 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① 관할 군수
② 질병관리청장
③ 관할 보건소장
④ 보건복지부장관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임신 28주인 32세 직장가입자인 임신부가 산부인과에서 정기 산전검진을 받았다. 이 임신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로 옳은 것은?

① 요양비로서 검진 비용을 사후에 현금으로 상환받는다.
② 선별급여로서 예비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산전검진을 받는다.
③ 방문요양급여로서 가정에서 간호사의 산전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④ 요양급여로서 산전검진 비용 전액을 요양기관에서 현물로 제공받는다.
⑤ 부가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도 지역의 시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 A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45일 동안 휴업하고자 한다. 그 기간 동안 진료기록부는 직접 보관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라 A가 취해야 할 조치는?

① 관할 도지사에게 휴업 신고
② 관할 보건소장에게 휴업 신고
③ 대한의사협회 지부에 휴업 사실을 통보
④ 별도의 신고 없이 의원 입구에 안내문 게시
⑤ 관할 시장에게 휴업 신고를 하고,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받음

5. 시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만성 요통으로 방문한 55세 남자 B에게 펜타닐(fentanyl) 패치를 처방하려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A가 처방전 발급 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① 외래 환자에게 처방 시에는 투약내역의 확인 없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관할 시·도지사에게 B의 마약류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B의 마약류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투약내역 확인 의무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에만 적용되며, 마약인 펜타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투약내역 확인 결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이 처방된 경우에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

6. 의사 '갑'은 간호사 2명과 함께 의료봉사팀을 구성하여 경상북도 A군 소재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 8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갑'은 건강검진 실시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갑'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재는?

① 벌금
② 과태료
③ 면허취소
④ 자격정지
⑤ 업무 정지

7. 시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한다. 「의료법」에 따라 A가 취해야 할 조치는?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②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설치 허가를 신청
③ 대한의사협회 지부에 설치 사실을 통보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
⑤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수의료장비 설치 허가를 신청

8. 22세 남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위해 병원에 왔다.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검진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확인되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검진 결과를 통보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① 본인
② 본인과 직계 가족
③ 본인과 소속 부대장
④ 본인과 관할 보건소장
⑤ 본인과 질병관리청장

9. A 의원의 원장 '갑'은 건물 1층에 의원을 개설하면서, 환자와 직원의 편의를 위해 건물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하였다. 흡연실에는 환기시설을 갖추었으나, 의원 출입구에서 옥상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7 m이다. 또한 의원 입구에는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간 운영하였다. 관할 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사례에서 '갑'이 위반한 사항은?

① 위반 사항이 없음
② 흡연실 설치 장소 위반
③ 흡연실의 환기시설 설치 기준 위반
④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없이 운영이 가능한 기간 위반
⑤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이 됨

10. 광역시에서 60병상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진료과목을 추가하고 병상을 90개로 늘리면서 병원 명칭도 변경하려 한다.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① 관할 구청장
② 관할 보건소장
③ 관할 시·도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11. 58세 남자 A가 등산 중 추락하여 의식을 잃고 호흡이 약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휴무일에 등산 중이던 정형외과 전문의인 B가 경추를 고정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A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마비가 남았고, 가족은 B의 응급처치로 인해 손상이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B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처치 후 손상이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환자의 동의 없이 처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의사는 일반인보다 주의의무가 높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58세 여자 환자 '갑'이 2주 전 A종합병원에서 의사 '을'에게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으면서 농축적혈구 2단위를 수혈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혈액원은 환자 '갑'에게 수혈된 혈액 중 1단위가 C형간염 관련 혈액선별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되었음을 A종합병원에 알리면서 수혈자 정보를 요청하였다. 환자 '갑'은 현재 특별한 증상 없이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갑'에게 부적격혈액이 수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자는?

① 의사 '을'
② A종합병원의 장
③ 혈액원
④ 질병관리청장
⑤ 보건복지부장관

13. 68세 남자 '갑'은 폐암으로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B종합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었다. B종합병원 의사 '을'이 A병원에 '갑'의 수술 기록 사본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갑'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갑'의 수술 기록 사본에 대해 A병원이 취할 조치는?

① 법원의 명령을 받고 송부한다.
②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 후 송부한다.
③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때까지 송부를 보류한다.
④ 보호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송부한다.
⑤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송부한다.

14. 제2급감염병인 홍역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관할 보건소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역학조사관이 시 지역에서 A의원을 개설한 의사 '갑'에게 최근 홍역 의심 환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의사 '갑'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① 진료기록 제출 요청은 질병관리청장만 할 수 있다.
② 의사 '갑'의 자료 제출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③ 의사 '갑'은 환자 동의 없이는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역학조사관은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법적 권한이 없다.
⑤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의사 '갑'은 벌금 대상이다.

15. 의사 A는 담낭절제술을 앞둔 환자 B에게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 B가 침해받은 권리는?

① 비밀 보장 권리
②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③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⑤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16. 의사 A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며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 면허 재교부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즉시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교부는 불가능하며 면허를 영구적으로 상실한다.
③ 면허 취소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면허가 회복된다.
④ 면허 취소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와 무관하게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⑤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고, 취소일부터 3년도 경과한 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7. 78세 남자 폐암 4기 환자가 호흡 곤란으로 입원하였다. 현재 의식이 저하되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담당 의사는 수일 내 심정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다. 가족으로는 배우자(75세), 장남(50세), 차녀(47세)가 있다. 배우자는 "남편이 평소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장남은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야 한다"라며 심폐소생술과 기계환기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차녀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담당 의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① 가족 전원의 합의 도출 가능성
② 병원윤리위원회의 즉각 소집 가능성
③ 배우자 의견에 대한 장남의 동의 가능성
④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
⑤ 배우자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18. 시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는 환자 B에게 사용한 모르핀(morphine)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 및 환자 B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① 시·도지사
② 마약류감시원
③ 관할 보건소장
④ 시장·군수·구청장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9. 인도를 방문하고 귀국한 32세 남자 A는 심한 설사와 구토를 하여 공항 검역 과정에서 검역조사를 받았다. 대변 검체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어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었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A에게 취해야 할 조치는?

① 3일간 격리한 후 해제한다.
② 14일간 자가격리를 지시한다.
③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한다.
④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감시를 요청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고 귀가 조치한다.

20. 72세 남자가 1기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수술 시 높은 생존율이 예상되나, 환자는 오래전부터 숙고한 소신에 따라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 경과에 맡기길 원한다. 질병 이해도나 치료에 대한 불신·공포는 없으며, 가족의 설득에도 의사를 바꾸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충돌하는 윤리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행 원칙 대 정의 원칙
② 해악 금지 원칙 대 정의 원칙
③ 자율성 존중 원칙 대 선행 원칙
④ 자율성 존중 원칙 대 정의 원칙
⑤ 자율성 존중 원칙 대 해악 금지 원칙

21. 45세 남자가 최근에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왔다.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정상이라고 들었으며 1주일간 집에서 측정한 평균 혈압이 150/90 mmHg 이상이라고 한다. 진료실 혈압 125/78 mmHg, 맥박 76회/분, 호흡 23회/분, 체온 36.8 ℃이다. 가슴 X선사진**(사진 1-1)**과 심전도**(사진 1-2)**이다. 진단은?

① 가면고혈압
② 백의고혈압
③ 본태고혈압
④ 크롬친화세포종
⑤ 카시노이드증후군

22. 33세 산과력 3-0-1-3인 여자가 1년 전부터 월경이 불규칙하다며 병원에 왔다. 요즘 잠이 잘 안 오고 짜증이 많이 나며 얼굴이 붉어진다고 한다. 키 160 cm, 몸무게 59 kg이다. 혈압 130/90 mmHg, 맥박 8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8 ℃이다. 골반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과 자궁부속기는 정상이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은?

난포자극호르몬 42.0 mIU/mL (참고치, 3.0~20.0)
황체형성호르몬 38.0 mIU/mL (참고치, 2.0~15.0)
에스트라다이올 <5.0 pg/mL (참고치, 20~200)
갑상샘자극호르몬 2.80 mIU/L (참고치, 0.34~4.25)
프로락틴 10.5 ng/mL (참고치, 1.9~25.0)

① 조기폐경
② 다낭난소증후군
③ 자궁내막유착증
④ 안드로젠무감각증후군
⑤ 저생식샘자극호르몬생식샘저하증

23. 77세 남자가 1주일 전부터 열이 나서 심해진다며 병원에 왔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온다고 하며, 3주 전 기침과 오한으로 개인 병원에서 항생제를 투여받았다고 한다. 50갑·년의 흡연자이다. 혈압 150/90 mmHg, 맥박 8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8 ℃이다. 가슴 청진에서 오른쪽 윗가슴에 쌕쌕거림이 들린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슴 X선사진**(사진 2)**이다. 검사는?

백혈구 13,500/mm^3 (호중구 88 %, 림프구 12 %) 혈색소 13.5 g/dL, 혈소판 320,000/mm^3 혈액요소질소 18 mg/dL, 크레아티닌 1.1 mg/dL

① 가슴막천자
② 폐기능검사
③ 기관지내시경
④ 피부경유가는바늘생검
⑤ 메타콜린기관지유발검사

24. 임신나이 40주, 출생체중 3,500 g으로 태어난 남아가 출생 직후부터 호흡곤란을 보여서 흡입산소분율 0.8로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다. 출생 시 전신이 파랗게 보이고, 태변이 착색된 양수가 관찰되었다. 혈압 54/32 mmHg, 맥박 168회/분, 호흡 72회/분, 체온 36.6 ℃이다. 맥박산소포화도는 오른손 91 %, 왼발 80 %이다. 가슴벽 뒤당김이 심하고 양쪽 폐 전반에서 거친 거품소리가 들린다. 가슴 X선사진 **(사진 3)**이다. 처치는?

① 카페인
② 수액 제한
③ 이부프로펜
④ 폐표면활성제
⑤ 글루코코티코이드

25. 35세 여자가 10일 전부터 메슥거리고 가끔 토한다며 병원에 왔다. 임신 10주이며, 어머니와 언니가 간염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한다. 혈압 120/80 mmHg, 맥박 80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7 ℃이다. 공막에 황달은 없다. 복부진찰에서 압통과 반동압통은 없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치는?

백혈구 4,500/mm^3, 혈색소 12.3 g/dL, 혈소판 290,000/mm^3 프로트롬빈시간 12초 알부민 3.9 g/dL, 총빌리루빈 1.2 mg/dL 아스파트산아미노기전달효소 20 U/L 알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 50 U/L IgM anti-HAV (-), IgG anti-HAV (+) HBsAg (+), IgG anti-HBc (+), HBeAg (-), anti-HBe (+) HBV DNA 1.2×10^3 IU/mL, anti-HCV (-), anti-HDV (-) anti-HEV (-), 알파태아단백질 100 ng/mL 항미토콘드리아항체(-), 항핵항체(-)

① 추적검사
② 테노포버
③ 엔테카버
④ 소포스부버
⑤ 페그인터페론

26. 61세 여자가 아침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5일 전 직장암으로 저위전방절제를 받고 입원 중이다. 수술을 받은 후 대부분 침상에서 안정을 하였다고 한다. 혈압 112/68 mmHg, 맥박 118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7.1 ℃, 맥박산소포화도 88 %이다. 가슴 청진에서 양쪽 호흡음은 정상이고 거품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심음은 빠르나 잡음은 없다. 배는 편평하고 부드러우며 압통과 반동압통은 없다. 오른쪽 종아리에 부종과 압통이 있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슴 X선사진에서 특이 소견은 없다. 심전도에서 동성빈맥이 보인다. 다음 검사는?

혈액: 백혈구 9,600/mm^3, 혈색소 11.4 g/dL, 혈소판 236,000/mm^3 동맥혈기체(대기호흡): pH 7.46, $PaCO_2$ 31 mmHg PaO_2 60 mmHg

① 심장초음파
② 폐관류스캔
③ 기관지내시경
④ 하지정맥초음파
⑤ 폐동맥 컴퓨터단층촬영

27. 75세 여자가 3일 전부터 오른쪽 윗배가 심하게 아프고 열이 나서 응급실에 왔다. 2주 전 복강경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떼어낸 담낭에 담석이 12개 있었고 경과가 양호하여 퇴원하였다고 한다. 혈압 110/70 mmHg, 맥박 110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8.5 ℃이다. 복부진찰에서 오른쪽 윗배에 압통이 있으나 반동압통은 없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을 위한 다음 검사는?

백혈구 15,000/mm^3, 혈색소 11.8 g/dL, 혈소판 135,000/mm^3
총빌리루빈 4.2 mg/dL, 직접빌리루빈 3.5 mg/dL
아스파트산아미노기전달효소 250 U/L
알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 220 U/L
알칼리성인산염분해효소 400 U/L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37/2.3 mg/dL
C반응단백질 27 mg/L (참고치, <10)

① 복부 X선
② 간담도스캔
③ 자기공명담췌관조영
④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
⑤ 조영증강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28. 25세 산과력 0-0-2-0인 여자가 1일 전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다. 오한과 구역질이 나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 걷기 힘들다고 한다. 혈압 110/70 mmHg, 맥박 102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8.8 ℃이다. 복부진찰에서 오른쪽 아랫배에 뚜렷한 압통과 반동압통이 있다. 골반진찰에서 다량의 노란색 분비물과 함께 자궁경부 이동통증이 관찰된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반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사진 4)**이다. 처치는?

혈액: 백혈구 15,800/mm^3, 혈색소 12.5 g/dL, 혈소판 245,000/mm^3
C반응단백질 50.8 mg/L (참고치, <10)
소변: 임신반응검사 음성

① 항진균제
② 경구항생제
③ 정맥항생제
④ 항바이러스제
⑤ 복합경구피임제

29. 56세 남자가 2주 전부터 눈이 노래진다며 병원에 왔다. 10일 전부터 전신에 힘이 없고 3일 전부터 식욕부진이 있다고 한다. 20년간 하루에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셨다고 한다. 혈압 110/72 mmHg, 맥박 98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5 ℃이다. 의식은 명료하며, 공막에 황달이 있다. 복부에 압통은 없고 이동탁음이 있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료는?

백혈구 12,000/mm^3 (중성구 50 %)
혈색소 11.0 g/dL, 혈소판 100,000/mm^3
프로트롬빈시간 20.4초 (참고치, 12.7~15.4)
알부민 3.9 g/dL, 총빌리루빈 18 mg/dL
아스파트산아미노기전달효소 180 U/L
알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 70 U/L
크레아티닌 1.0 mg/dL
IgG anti-HAV (+), HBsAg (-), anti-HBs (+), anti-HCV (-)

① 간이식
② 세포탁심
③ 프레드니솔론
④ 어소데옥시콜산
⑤ 가지사슬아미노산

30. 5개월 여아가 목을 가누지 못해 병원에 왔다. 임신나이 38주, 출생체중 3,500 g으로 출생하였다. 최근에 수유량이 줄고 대변을 잘 보지 않는다고 한다. 몸무게는 6.5 kg (29.1백분위수)이다. 혈압 95/65 mmHg, 맥박 110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6.5 ℃이다. 공막과 피부가 노랗다. 혀가 크고 혀를 내밀고 있다. 호흡음은 정상이며, 복부 팽만이 있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는?

백혈구 10,530/mm^3, 혈색소 10.6 g/dL, 혈소판 516,000/mm^3
칼슘/인 9.41/6.07 mg/dL
총빌리루빈/직접빌리루빈 14.71/0.61 mg/dL

① 쿰즈검사
② 염색체검사
③ 갑상샘기능검사
④ 말초혈액펴바른표본
⑤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31. 70세 남자가 3년 전부터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가 있어서 병원에 왔다.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춰 쉬어야 하며, 호흡곤란으로 지난 1년간 2회 입원했다고 한다. 50 갑·년의 흡연자이고 복용 중인 약은 없다. 혈압 120/70 mmHg, 맥박 82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7 ℃이다. 양측 가슴에서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슴 X선사진**(사진 5)**이다. 치료는?

혈액: 백혈구 4,900/mm^3, 호산구 90/mm^3
혈색소 11.8 g/dL, 혈소판 210,000/mm^3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후):
1초간 강제날숨량(FEV_1) 정상 예측치의 42 %
1초간 강제날숨량/강제폐활량(FEV_1/FVC) 0.47

① 속효 베타2작용제
② 지속 항콜린제
③ 흡입 코티코스테로이드
④ 지속 베타2작용제 + 지속 항콜린제
⑤ 지속 베타2작용제 + 지속 항콜린제 + 흡입 코티코스테로이드

32. 63세 남자가 자꾸 졸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다며 가족에 의해 응급실로 왔다. 20년 전부터 하루 소주 2병 이상을 마셔왔으며 최근 술은 마셨지만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한다. 혈압 112/72 mmHg, 맥박 94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7 ℃이다. 신체 진찰에서 안구 운동 장애와 실조증이 관찰된다. 우선적 치료는?

① 엽산 경구 투여
② 티아민 정맥 주사
③ 미다졸람 정맥 주사
④ 포도당용액 정맥 주사
⑤ 할로페리돌 근육 주사

33. 53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오른쪽 손목이 아프다며 병원에 왔다. 4개월 전부터 아침에 양쪽 손가락이 뻣뻣하고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으며 이 증상은 2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한다. 10년 전부터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혈압 110/70 mmHg, 맥박 70회/분, 호흡 12회/분, 체온 36.5 ℃이다. 오른쪽 손목과 두 번째 손허리손가락관절에서 부종과 압통이 관찰된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손 X선사진**(사진 6)**이다. 진단은?

백혈구 5,200/mm^3, 혈색소 12.5 g/dL, 혈소판 190,000/mm^3
C반응단백질 18 mg/L (참고치, <10)
적혈구침강속도 30 mm/시간 (참고치, <20)
류마티스인자 10 IU/mL (참고치, <15)
항고리시트룰린펩타이드(CCP)항체 양성

① 통풍
② 골관절염
③ 강직척추염
④ 건선관절염
⑤ 류마티스관절염

34. 39세 여자가 1주일 전부터 체한 느낌이 있다고 병원에 왔다. 20년 전에 담석증이 있어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며 평소에도 과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소화제를 자주 복용한다고 한다. 3년 전 급성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혈압 105/74 mmHg, 맥박 82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7 ℃이다. 배에 만져지는 덩이는 없고, 압통과 반동압통은 없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부 초음파 사진**(사진 7-1)**,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사진 7-2**: 조영증강전, **사진 7-3**: 조영증강**)**과 복부 자기공명영상 사진**(사진 7-4)**이다. 치료는?

백혈구 5,180/mm^3, 혈색소 14.8 g/dL, 혈소판 377,000/mm^3
총 단백질 8.3 g/dL, 알부민 4.3 g/dL
총 빌리루빈 0.6 mg/dL
알칼리성인산염분해효소 178 U/L
아스파트산아미노기전달효소 29 U/L
알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 33 U/L
CA 19-9 291.2 U/mL (참고치, <37)

① 고주파열치료
② 체외충격파쇄석술
③ 내시경조임근절개
④ 경동맥색전술
⑤ 간절제술

35. 32세 남자가 6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통증이 심하고 1시간 정도 지속되지만, 움직이면 좋아진다고 한다. 2개월 전부터는 오른쪽 무릎이 붓고 아프고, 왼쪽 발뒤꿈치도 아프다고 한다. 20갑·년의 흡연자이다. 혈압 122/76 mmHg, 맥박 78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6 ℃이다. 허리 진찰에서 요추의 굴곡이 감소되어 있다. 오른쪽 무릎은 부어 있고 열감이 느껴지며 압통이 있다. 왼쪽 아킬레스건 부착 부위에 압통이 있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골반 X선사진**(사진 8)**이다.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1주간 복용한 후 허리 통증은 호전되는 중이나, 오른쪽 무릎의 부기와 통증은 지속된다고 한다. 치료는?

백혈구 7,100/mm^3, 혈색소 13.6 g/dL, 혈소판 188,000/mm^3
적혈구침강속도 40 mm/시간 (참고치, <15)
C반응단백질 42 mg/L (참고치, <10)
류마티스인자 12 IU/mL (참고치, <15)
항고리시트룰린펩타이드(CCP)항체 음성
HLA-B27 양성

① 설파살라진
② 아바타셉트
③ 토실리주맙
④ 레플루노마이드
⑤ 하이드록시클로로퀸

36. 30세 산과력 1-0-0-1인 여자가 피임을 상담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 10개월 전 분만 후 모유수유 중이라고 한다. 3개월 전부터 월경이 있고, 월경량이 많다고 한다. 임신 전에는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였다고 한다. 3년 후 둘째 임신 계획이 있다고 한다. 혈압 120/80 mmHg, 맥박 80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8 ℃이다. 골반초음파검사 결과는 정상이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처치는?

백혈구 5,500/mm^3, 혈색소 10.0 g/dL, 혈소판 310,000/mm^3

① 난관결찰
② 구리자궁내장치
③ 복합경구피임제
④ 레보놀게스트렐방출자궁내장치
⑤ 선택프로게스테론수용체조절제

37. 46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기침을 한다고 병원에 왔다. 기침은 주로 새벽에 발생하고 기침으로 잠을 자기 어렵다고 한다. 명치가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다고 한다. 최근 몸무게가 5 kg 늘었다고 한다. 혈압 150/90 mmHg, 맥박 64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5 ℃이다.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슴 X선사진**(사진 9-1)**, 식도위내시경술 사진**(사진 9-2)**, 심전도**(사진 9-3)**이다. 치료는?

1초간 강제날숨량(FEV_1) 정상 예측치의 85 %
강제폐활량(FVC) 정상 예측치의 85 %
1초간 강제날숨량/강제폐활량(FEV_1/FVC) 0.9

① 살부타몰 흡입
② 나이페디핀 투여
③ 부데소니드 흡입
④ 에스오메프라졸 투여
⑤ 나이트로글리세린 혀밑투여

38. 65세 남자가 오늘 아침 집에서 호흡곤란이 있다며 응급실에 왔다. 1개월 전 빙판길에서 넘어져 발생한 요추부 압박골절로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한다. 1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약물치료 중이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가슴 X선사진**(사진 10)**이다. 입원 3일째부터 고열과 혈압 저하를 동반한 패혈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14일째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작성할 '직접사인(가)'과 '직접사인(가)의 원인'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패혈증 - 폐렴
② 급성호흡부전 - 폐렴
③ 폐렴 - 당뇨병, 고혈압
④ 급성호흡부전 - 패혈증
⑤ 패혈증 - 당뇨병, 고혈압

39. 65세 남자가 1개월 전부터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보인다고 병원에 왔다. 고혈압으로 10년 전부터 칼슘통로차단제를 복용 중이다. 혈압 130/70 mmHg, 맥박 75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9 ℃이다. 양쪽 정강뼈앞 오목부종이 있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은?

혈액: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29/1.5 mg/dL
$Na^+/K^+/Cl^-$ 131/5.0/100 mEq/L
총단백질/알부민 6.2/2.5 g/dL
항포스포리파아제A2수용체항체 양성
소변: 잠혈(+), 단백질(3+), 포도당(-)
단회뇨 단백질/크레아티닌비 3,960 mg/g

① 막사구체신염
② 미세변화신증
③ ANCA관련혈관염
④ 막증식사구체신염
⑤ 국소분절사구체신염

40. 1개월 여아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왔다. 아이를 침대에 눕혀 놓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코피가 난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임신나이 32주, 출생체중 2,000 g으로 태어났다. 혈압 60/40 mmHg, 맥박 180회/분, 호흡 50회/분, 체온 36.2 ℃이다. 앞숫구멍이 팽창되고 두개봉합이 벌어져 있으며 자극에 반응이 없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저사진**(사진 11-1)**과 뇌 자기공명영상 사진**(사진 11-2)**이다. 진단은?

백혈구 9,600/mm^3, 혈색소 8.5 g/dL, 혈소판 180,000/mm^3
C반응단백질 5.5 mg/L (참고치, <10)
프로트롬빈시간 13초 (참고치, 12.7~15.4)
활성화부분트로보플라스틴시간 38초 (참고치, 26.3~39.4)
출혈시간 2분 (참고치, <7.1)

① 급성빈혈
② 아동학대
③ 폐쇄수두증
④ 혈액응고질환
⑤ 신생아급사증후군

41. 64세 남자가 3일 전부터 소변량이 줄었다며 병원에 왔다. 7일 전부터 발열, 기침, 가래가 있어 지역 병원에서 폐렴으로 진단받고 항생제와 해열제를 복용 중이다. 4일 전부터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었으며, 하루 10회 이상의 수양성 설사를 했다고 한다. 혈압 88/54 mmHg, 맥박 108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8.1 ℃이다. 구강 점막은 건조하고 피부긴장도는 감소되어 있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가로 시행할 검사는?

혈액: 백혈구 14,500/mm^3, 혈색소 12.8 g/dL, 혈소판 230,000/mm^3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58/2.6 mg/dL $Na^+/K^+/Cl^-$ 128/3.0/106 mEq/L 소변: 잠혈(-), 단백질(±) 적혈구 0~1/고배율시야, 백혈구 1~4/고배율시야

① 신장생검
② 항핵항체
③ 혈청 보체
④ 혈청 단백질전기영동
⑤ 소변나트륨분획배설률

42. 35세 여자가 1개월 전부터 잠이 오지 않는다며 병원에 왔다. 5년 전 승진에서 누락됐는데 당시 약간 실망을 했지만 곧 극복했고, 자신은 원래 직장 생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다. 3년 전부터는 거의 매일 마음이 우울하고 피로해서 출근도 억지로 하고 있다고 한다. 식욕은 괜찮고 체중 변화는 없다고 한다. 진단은?

① 적응장애
② 순환성장애
③ 주요우울장애
④ 지속성우울장애
⑤ 제II형양극성장애

43. 52세 남자가 2시간 전에 변을 볼 때 대량의 피가 나왔다며 응급실에 왔다. 최근 20년간 거의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한다.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윗배가 아팠다고 한다. 혈압 100/60 mmHg, 맥박 115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8 ℃이다. 얼굴색은 창백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신체진찰에서 피부에 거미 모양의 붉은 혈관 반점은 보이지 않는다. 배 진찰에서 왼쪽 갈비뼈 아래에서 5 cm 너비의 덩이가 만져진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내시경술 사진**(사진 12-1, 12-2)**이다. 다음 검사는?

백혈구 7,500/mm^3, 혈색소 7.4 g/dL, 혈소판 78,000/mm^3 프로트롬빈시간 12.8초 (참고치, 12.7~15.4) 아스파트산아미노기전달효소 62 U/L 알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 38 U/L 총빌리루빈 0.9 mg/dL, 알부민 4.0 g/dL

① 간섬유화스캔
② 소장 캡슐내시경
③ ^{99m}테크네튬-적혈구스캔
④ 조영증강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⑤ 목정맥경유간내문맥전신순환션트

44. 55세 남자가 1시간 전부터 항문에서 피가 나온다고 응급실에 왔다. 출혈량은 종이컵 1컵 정도였다고 한다. 평소 변비와 설사를 반복했고, 최근 몸무게가 4 kg 줄었다고 한다. 혈압 110/80 mmHg, 맥박 6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7 ℃이다. 직장손가락검사에서 항문주위 통증은 없고, 항문연 4 cm 상방 전방에 덩이가 만져진다. 대장내시경 사진**(사진 13-1)**과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사진 13-2)**이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검사에서 원격전이 병변은 없다. 우선 시행해야 할 치료는?

백혈구 7,600/mm^3, 혈색소 7.9 g/dL, 혈소판 205,000/mm^3 혈액요소질소 10 mg/dL, 크레아티닌 1.2 mg/dL $Na^+/K^+/Cl^-$ 136/3.9/109 mEq/L

① 국소절제술
② 복회음절제술
③ 스탠트 삽입술
④ 저위전방절제술
⑤ 항암방사선 치료

45. 72세 남자가 2일 전부터 갑자기 숨이 찬다며 응급실에 왔다. 1주 전부터 발열과 기침, 누런 가래가 있어서 항생제를 복용하였다고 한다. 고혈압이 있으며 심부전 병력은 없다. 30갑·년의 흡연자이고 음주는 가끔 한다. 혈압 100/60 mmHg, 맥박 118회/분, 호흡 32회/분, 체온 38.6 ℃, 산소포화도 82 %이다. 청진에서 양쪽 가슴 전체에서 수포음이 들리고 심잡음은 없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슴 X선 사진**(사진 14)**이다. 진단은?

동맥혈기체분석: pH 7.48, $PaCO_2$ 30 mmHg PaO_2 52 mmHg 심초음파: 좌심실 박출분율 62 %

① 폐색전증
② 자발성 기흉
③ 급성 천식 악화
④ 급성 심인성 폐부종
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46. 32세 여자가 1일 전부터 시작된 양측 유방의 심한 팽만과 통증으로 병원에 왔다. 초산모로 4일 전 질분만하였다. 혈압 120/75 mmHg, 맥박 82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7.8 ℃이다. 유방검사에서 양측 유방이 대칭적으로 팽만되어 있고 압통이 있으나 국소적인 발적이나 종괴는 만져지지 않는다. 유두 분비물은 정상적인 모유 양상이다. 진단은?

① 유방염
② 유방농양
③ 유방울혈
④ 젖샘관막힘
⑤ 유방칸디다증

47. 70세 남자가 1일 전부터 몸에 힘이 없다며 응급실에 왔다. 15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및 만성콩팥병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다. 혈압 110/60 mmHg, 맥박 78회/분, 호흡 14회/분, 체온 36.5 ℃이다.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인 약제는?

백혈구 7,600/mm^3, 혈색소 9.9 g/dL, 혈소판 205,000/mm^3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34/1.5 mg/dL $Na^+/K^+/Cl^-$ 136/6.3/104 mEq/L

① 메트포민
② 피네레논
③ 나이페디핀
④ 글리메피리드
⑤ 다파글리플로진

48. 41세 남자가 새벽부터 왼쪽 눈 주위와 앞머리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다. 3년 전부터 비슷한 통증이 매년 1~2개월 반복됐다고 한다. 이전 두통은 보통 30분 이내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가 가라앉았는데, 이번에는 2시간이 넘도록 지속된다고 한다. 작년에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혈압 155/88 mmHg, 맥박 102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4 ℃이다. 왼쪽 결막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면서, 왼쪽 눈꺼풀 처짐과 동공 수축이 관찰된다. 우선 시행할 치료는?

① 인도메타신
② 마약성 진통제
③ 아세트아미노펜
④ 고유량 산소 요법
⑤ 베타차단제 점안액

49. 49세 남자가 1주 전부터 머리가 아프고 배가 점점 불러온다며 병원에 왔다. 아버지가 혈액투석을 받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혈압 150/90 mmHg, 맥박 70회/분, 호흡 12회/분, 체온 36.5 ℃이다. 양쪽 옆구리에서 덩이가 만져진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사진 15)**이다. 다음 검사는?

혈액: 혈색소 13.2 g/dL 혈액요소질소/크레아티닌 38/1.7 mg/dL 총단백질/알부민 7.6/4.1 g/dL 소변: 비중 1.020, 잠혈(-), 단백질(-) 적혈구 0~3/고배율시야 단회뇨 단백질/크레아티닌비 100 mg/g

① 뇌파검사
② 심초음파
③ 경동맥초음파
④ 뇌 자기공명혈관조영술
⑤ 조영증강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50. 28세 남자가 1개월 전 직장에서 해고된 후 마음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왔다. 그는 해고 이후 첫 1주 동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아 몹시 불안했고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고 한다. 혼자 방에 있을 때에도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무서웠다고 한다. 이후로 그런 느낌은 사라졌다고 한다. 진단은?

① 조현병
② 적응장애
③ 조현양상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⑤ 단기정신병적장애

51. 76세 여자가 1주 전 넘어진 후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왔다. 6개월 전부터 심근경색증으로 약물 복용 중이며, 키가 줄었다고 한다. 혈압 120/80 mmHg, 맥박 72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5 ℃이다. 등과 허리에 뚜렷한 압통은 없으나 척추 후만 소견이 관찰된다. 골밀도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허리 X선사진**(사진 16)**이다. 치료는?

T점수: 척추 -3.6, 대퇴골 경부 -2.1

① 데노수맙
② 로모소주맙
③ 테리파라타이드
④ 비스포스포네이트
⑤ 선택적에스트로겐수용체차단제

52. 6세 여아가 1년 전부터 가슴이 나온다며 병원에 왔다. 최근 1년간 키가 10 cm 자랐다고 한다. 아빠 키는 169 cm, 엄마 키는 153 cm이다. 혈압 110/90 mmHg, 맥박 80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6 ℃이다. 가슴 발달은 태너기 II, 음모 발달은 태너기 I이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는?

혈액: 갑상샘자극호르몬 1.5 mIU/L (참고치, 0.34~4.25)
에스트라다이올 <5 pg/mL (참고치, <10)
[생식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자극검사]
황체형성호르몬
기저 1.1 mIU/mL
최고 21.7 mIU/mL (참고치, 사춘기 전 여아 <10.0)
난포자극호르몬
기저 3.3 mIU/mL
최고 22.9 mIU/mL (참고치, 사춘기 전 여아 <5.0)
뼈나이: 7세

① 염색체검사
② 골반초음파검사
③ 유방초음파검사
④ 안장 자기공명영상
⑤ 갑상샘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자극검사

53. 20세 남자가 30분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응급실에 왔다. 수년 전부터 1년에 3~4회 정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었으며, 증상은 보통 10~20분간 지속되다가 멈췄다고 한다. 최근에는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지속 시간이 길어졌으며, 운동 중에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혈압 110/70 mmHg, 맥박 18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5 ℃이다. 가슴 진찰에서 심음은 규칙적이며 심잡음은 들리지 않는다. 증상 발생 시의 심전도**(사진 17-1)**와 증상 호전 후의 심전도**(사진 17-2)**이다. 진단은?

① 동성빈맥
② 심방세동
③ 심실빈맥
④ 심실세동
⑤ 돌발심실상빈맥

54. 56세 여자가 건강검진 목초음파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병원에 왔다. 갑상샘암의 과거력과 가족력은 없다고 한다. 혈압 120/80 mmHg, 맥박 82회/분, 호흡 16회/분, 체온 36.7 ℃이다. 신체진찰에서 만져지는 목 덩이는 없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치는?

혈액: 갑상샘자극호르몬 1.8 mIU/L (참고치, 0.34~4.25)
유리 T_4 1.1 ng/dL (참고치, 0.8~1.7)
갑상샘초음파: 좌엽에 1.0 cm 크기의 경계가 명확한 저에코성 결절, 미세석회화(-)
세침흡인세포검사: 비정형세포(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① 목 컴퓨터단층촬영
② 갑상샘 좌엽절제술
③ 1년 뒤 갑상샘초음파
④ 6개월 뒤 갑상샘 기능검사
⑤ 3개월 뒤 세침흡인세포검사

55. 74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피곤하고 입맛이 없다며 병원에 왔다. 최근 3개월 동안 몸무게가 5 kg 줄고, 기침을 하며, 간헐적으로 누런 가래가 나온다고 한다. 발열과 야간 발한이 있다. 당뇨병은 없다. 혈압 122/74 mmHg, 맥박 86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7.8 ℃이다. 가슴 청진에서 오른쪽 윗가슴에서 수포음이 들린다. 가슴 X선사진**(사진 18)**이다. 기관지세척액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은?

그람염색: 음성
세균배양: 배양균 없음
항산균펴바른표본: 양성
항산균 배양: 검사 중
결핵균 검출 및 리팜핀 내성검사(Xpert MTB/RIF): 양성/리팜핀 내성 음성

① 폐결핵
② 폐농양
③ 공동형 폐암
④ 진균성 폐렴
⑤ 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 감염

56. 5세 남아가 학교 검진에서 심잡음이 들린다고 했다며 병원에 왔다. 실신,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없다. 키 113 cm (50~75백분위수), 몸무게 20 kg (50~75백분위수)이다. 혈압 105/60 mmHg, 맥박 105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6.5 ℃, 맥박산소포화도 100 %이다. 가슴 청진에서 왼쪽 복장뼈 아래에서 2/6도의 수축기 잡음이 들린다. 잡음은 누우면 더 잘 들리고 서면 감소한다. 제2심음은 정상이며 이완기 잡음은 들리지 않는다. 가슴 X선사진**(사진 19-1)**과 심전도**(사진 19-2)**이다. 진단은?

① 정맥 잡음
② 스틸 심잡음
③ 동맥관개존증
④ 승모판막협착
⑤ 심실중격결손

57. 26세 남자가 1일 전 성기에 병변이 생겼다며 병원에 왔다. 어제저녁 소변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병변에 통증은 없다고 한다. 2주 전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혈압 120/80 mmHg, 맥박 90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5 ℃이다. 병변 사진**(사진 20)**이다. 양측 고샅부위에 2 cm 크기의 림프절이 만져진다. 진단은?

① 매독
② 무른궤양
③ 성기단순포진
④ 뾰족콘딜로마
⑤ 성병림프육아종

58. 65세 산과력 6-0-1-6인 여자가 3개월 전부터 질 밖에서 덩이가 만져져서 병원에 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덩이가 없는데 오후에 활동을 많이 하면 점점 덩이가 나오며 무거운 물건을 들면 덩이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덩이가 나와 있을 때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아랫배가 불편하다고 한다. 혈압 120/80 mmHg, 맥박 80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8 ℃이다. 외음부 사진**(사진 21)**이다. 처치는?

① 케겔운동
② 에스트로젠 질 크림
③ 에스트로젠-프로제스틴 경구제
④ 중부요도슬링
⑤ 자궁절제와 천골질고정

59. 67세 여자가 2주 전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주사를 맞다가 전신이 가렵고 숨이 찼었다며 병원에 왔다. 대장암으로 3주 간격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으며, 5회 차부터 가려움증이 있었고 이번이 7회 차 치료였다고 한다. 당시 주사를 중단하고 에피네프린과 글루코코티코이드 투여 후 호전되었다고 한다. 항암치료 결과 부분 반응으로 동일한 약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조치는?

① 옥살리플라틴 점진적 투여
② 옥살리플라틴 탈감작 치료
③ 옥살리플라틴 투여 전 항류코트리엔제
④ 옥살리플라틴 투여 전 글루코코티코이드
⑤ 옥살리플라틴 투여 전 항IgE 단클론항체

60. 32세 여자가 30분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응급실에 왔다. 2년 전부터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한 불안을 느껴 지하철을 탈 수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쇼핑몰에서도 같은 증상을 경험하여 온라인으로만 필요한 물품을 주문해 왔다고 한다. 혼자 외출을 하면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것 같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주로 집에서만 생활해왔다고 한다. 다른 상황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응급실 방문 당시에는 친척 장례식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지하철을 탔는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혈압 130/80 mmHg, 맥박 90회/분, 호흡 30회/분, 체온 36.5 ℃이다. 혈액검사, 심전도, 가슴 X선검사 결과는 정상이다. 진단은?

① 공황장애
② 광장공포증
③ 사회공포증
④ 특정공포증
⑤ 회피성성격장애

61.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가진 건강 잠재력과 건강 위해 간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세계보건기구의 '안녕(well-being)' 대신 '잘 균형 잡힌 생활(well-balanced life)'로 표현할 수 있는 건강 개념은?

① 신체 개념의 건강
② 심신 개념의 건강
③ 생활 개념의 건강
④ 생활수단 개념의 건강
⑤ 사회적 역할 개념의 건강

62. 사진**(사진 22)**은 대중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직접적으로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보여준다. 이 정책에서 사용된 접근 방식과 가장 유사한 정책·사업은?

① 주류회사 후원 금지
② 흡연자 대상 폐암 검진 실시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기 추적 관리
④ 비만 환자 대상 운동 프로그램 시행
⑤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연 사업 실시

63. 폐경 후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이 심근경색증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12년의 연구기간 동안, 일부 대상자는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을 시작하거나 중단하였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비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관찰을 종료하였다. 연구 대상 및 수집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통계방법은?

- 연구 대상: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심혈관질환 과거력이 없는 폐경 후 여성 8,000명
- 수집 정보: (건강보험청구자료) 여성호르몬 대체요법 처방 정보 (건강검진자료) 연령, 체질량지수, 흡연 및 음주 여부, 고혈압 및 당뇨병 유무, LDL-콜레스테롤 수치, 가족력, 스타틴 복용 여부

① 성향점수 매칭
② 포아송 회귀분석
③ 로지스틱 회귀분석
④ 콕스비례위험모형
⑤ 일반화선형혼합모형

64. 24세 여자가 2개월 전부터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어도 중간에 자주 깬다며 병원에 왔다. 낮에는 피곤하고 졸린다고 한다. 3개월 전에 종합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였고, 교대근무로 인하여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다고 한다. 추정되는 원인 물질은?

① 그렐린
② 코티솔
③ 멜라토닌
④ 에피네프린
⑤ 노르에피네프린

65. 어떤 국가에서 국민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고가의 최신의료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국민 주치의 등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제도에서는 의원급 주치의의 문지기 역할이 강조된다. 기존 제도에 비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이 제도의 장점은?

①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극대화된다.
② 의료의 질이 한없이 높아질 수 있다.
③ 신의료기술 도입이 매우 용이해진다.
④ 예방중심의 진료와 건강증진 활동이 유도된다.
⑤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를 확립하는데 유리하다.

66. 전립샘암에 대한 새로운 선별검사법이 개발되어 효과평가를 위한 무작위배정 연구가 시행되었다. 그 결과,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선별검사를 받은 집단에서 전립샘암 발생과 기타 무증상 암 발생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① 기간차이 바이어스
② 조기발견 바이어스
③ 자기선택 바이어스
④ 과다진단 바이어스
⑤ 추적관찰 탈락 바이어스

67. 64세 여자가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확인되었다며 병원에 왔다. 강 하류 갯벌 근처에 40년째 거주하며 낙지, 게, 조개류 등 갯벌 서식 해산물을 자주 섭취한다고 한다. 이 증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 있는 중금속은?

① 납
② 망간
③ 비소
④ 수은
⑤ 카드뮴

68. 교대근무가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였다. 근무 기록 및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하여, 1년 이상 교대근무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분류한 후 추적관찰기간 내 새롭게 발생한 심뇌혈관질환을 관찰해 비교하였다. 사용된 연구 방법은?

① 단면연구
② 생태학적연구
③ 무작위임상시험
④ 환자대조군연구
⑤ 후향적코호트연구

69.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율은 다음과 같다. 지표값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국 보건소에서는 교육 인력을 신규 모집하여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이와 관련한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 구성요소는?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60.7 %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51.5 %

① 관리
② 의료자원
③ 경제적 지원
④ 자원의 조직화
⑤ 의료서비스의 제공

70. 에어컨 부품 세척공정 근로자들의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나왔다. 역학조사 결과,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휘발성 유기용제가 세척공정에 도입되었으나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호흡보호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인 물질은?

① 벤젠
② 에탄올
③ n-헥산
④ 트리클로로메탄
⑤ 이소프로필알코올

71. 다음은 감염병 생성의 6단계 중 무엇을 관리하는 것인가?

> 감염병 A는 동물에서 변이가 발생한 후 사람에서 대규모로 유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해당 감염병은 B 동물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이전에 C 동물에서 존재했던 것이 밝혀졌다. 감염병 관리를 위해 C 동물을 감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① 숙주
② 전파
③ 침입
④ 병원소
⑤ 병원체

72. 34세 남자가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였다. 군대에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매일 1갑 이상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의 해로움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젊기 때문에 금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1주일 전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안 후 금연하려고 한다. 행동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건강믿음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는?

① 행동계기
② 자기효능감
③ 인지된 이익
④ 인지된 장애
⑤ 인지된 감수성

73. 다음과 관련한 예방의 단계는?

> 신생아를 대상으로 페닐케톤뇨증과 같은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성 갑상샘기능저하증, 청력장애 등을 찾아내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

① 회복
② 일차 예방
③ 이차 예방
④ 삼차 예방
⑤ 근원적 예방

74.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건강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역학연구와 동물연구를 검토하여 과불화화합물의 참고치(Reference Dose, RfD)를 설정하였다. 이 과정은 건강위해성평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① 위해도 관리(Risk Management)
②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③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④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⑤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75. 8세 남아가 배가 아파 종합병원 응급실에 왔다. 검사 결과 급성충수염으로 진단되어 입원 후 수술을 받았다. 진료비는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부과되었다. 이와 관련한 진료비 지불제도는?

① 인두제
② 묶음지불제
③ 총액계약제
④ 일당진료비제
⑤ 행위별수가제

76. 소아에게서 바이러스장염을 조기진단하는 검사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다음 정보에 근거할 때,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실제로 바이러스장염일 확률은?

- 민감도: 90 %
- 특이도: 95 %
- 유병률: 20 %

① 27.5 %
② 75.0 %
③ 81.8 %
④ 90.9 %
⑤ 94.0 %

77. 48세 남자가 운동할 때 손이 떨려서 병원에 왔다. 뒤로 걸을 때 잘 넘어지고 자세가 불안정하다고 한다. 20년간 비철합금 제조 공장에서 분쇄작업을 했다고 한다. 가슴 X선, 심전도, 뇌파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인 물질은?

① 망간
② 비소
③ 수은
④ 크롬
⑤ 카드뮴

78.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시설 등 자원과 의료기관의 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구조적 측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는?

① 의료이용도 조사
② 환자만족도 조사
③ 면허와 자격부여 제도
④ 의료전문인들의 상호감사
⑤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보급

79. 20세 남자가 한여름 오후에 2시간 농구를 한 후 힘이 없어 응급실로 왔다. 두통, 구역, 어지럼을 호소했다. 혈압 110/70 mmHg, 맥박 128회/분, 호흡 30회/분, 체온 38.5 ℃이다. 피부는 뜨겁지만 땀이 나며 촉촉하다.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은?

혈액: Na^+/K^+ 130/3.4 mEq/L 포도당 98 mg/dL 동맥혈기체(대기호흡): pH 7.49, $PaCO_2$ 28 mmHg, SpO_2 99 %

① 열경련
② 열사병
③ 열탈진
④ 과호흡증후군
⑤ 저나트륨혈증

80. 그림**(사진 23)**은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유행한 감염병의 유행곡선이다. 추정되는 전파경로는?

① 식수오염
② 동물과 접촉
③ 모기에 물림
④ 사람 간 접촉
⑤ 오염된 음식 섭취

1교시 종료